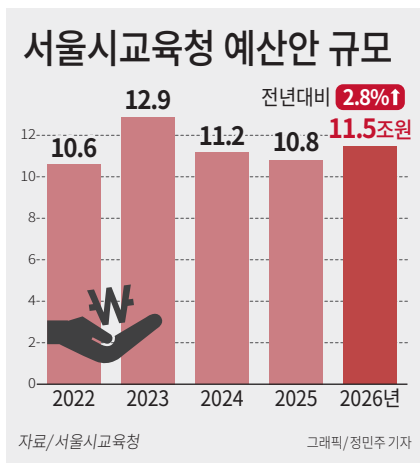
#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5조 편성
# AI 역량 키우고, 교육격차 줄인다

**2026년도 예산 작년대비 2.8%↑**
**학력격차 해소 위한 맞춤교육 강화**
**AI 인프라 구축, 학교 환경 개선도**



자료/서울시교육청 그래픽/정민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 방향을 ▲AI 기반 미래역량 강화 ▲맞춤형 학습 지원 ▲학교 안전 및 교권 보호에 두고,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현장 중심 투자를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도 예산안을 총 11조4773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달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10조8027억원)보다 6746억원(6.2%) 증가한 규모로, 2024년 예산(11조1605억원)과 비교해도 3168억원(2.8%)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입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재정 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이 약 4000억원 줄고, 공무원 인건비(3.5% 인상) 부담이 3500억원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기금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AI 교육 등 미래역량 강화,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 다양한 공교육 지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맞춤형 교육 강화로 학력격차를 해소한다.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을 목표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159억7000만원, 심층 진단 및 치유 연계 프로그램에 50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학습·정서·진로 등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는 112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AI·미래역량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강화(15억3000만원)와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64억6000만원)를 지원한다. AI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AI 교육센터 설립(4억3000만원), AI 중점학교 운영(58억2000만원), 디지털 인프라 개선(221억2000만원), 전자칠판 보급(277억8000만원)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정근식 교육감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에도 힘을 쏟는다.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2억9000만원), Wee센터 및 We클래스 상담활동(27억7000만원),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 지원(15억9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교권침해 교원 지원센터(20억6000만원), 교권보호위원회 및 전담 변호사 운영(22억2000만원), 교실안심 SEM 및 교육활동 보호지원단 운영(11억3000만원) 등 교원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내 CCTV 사각지대 해소(23억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44억7000만원) 등에 예산이 배정됐다.

노후학교 개축 및 확충(1687억원), 냉난방·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2999억원), 내진보강 및 안전점검(1138억원) 등 시설 개선도 대폭 확대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교육격차 해소, AI 교육 강화, 마음건강 증진, 공교육 내실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주요 10개 대학 정시, 경영·반도체 '최상위'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분석**
**인문계 '경영학', 자연계 '반도체'**
**무전공 선발에도 학과 쏠림 심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에서는 경영학과가, 자연계에서는 반도체 관련 학과가 상위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주요 10개 대학 정시 합격점수 상위 3개 학과 중 인문계에서는 경영학과가 5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유전공학부(4개교) 통계학과(4개교) 행정학과(4개교) 교육학과(3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여전히 경영·경제 계열을 중심으로 진학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는 특히 자유전공학부의 부상이 눈에 띈다. 지난해 2개교에서 올해 4개교로 늘며 경영학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학과 역시 지난해 3개교에서 4개교로 증가해 수리·데이터 기반 학과의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제학과와 미디어학과는 각각 지난해 3개교에서 1개교로 줄었다.

지난 7월 진로진학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입시 전략을 듣고 있다. /뉴시스

자연계에서는 의약학계를 제외한 순수 자연계열 기준 상위 30개 학과 중 반도체학과가 5개교로 가장 많았고, AI(3개교) 건축(3개교) 컴퓨터(3개교) 자유전공(2개교) 전자전기(2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별 상위학과를 보면 서울대는 자체 환산점수 기준으로 인문계 ▲광역(학부대학) 401.80점 ▲자유전공학부 401.20점 ▲경영대학 399.80점 순이었고, 자연계는 ▲수리과학부 413.40점 ▲컴퓨터공학부 411.40점 ▲전기정보공학부 406.00점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국·수·탐 각 과목별 70%컷을 합산한 점수 기준으로 인문계 ▲경영학과 281.5점 ▲사회복지학과 280.0점 ▲응용통계학과 279.5점, 자연계는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286.5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86.0점 ▲지구시스템과학과 285.0점 순이다.

고려대는 인문계 ▲통계학과 95.02점 ▲한국사학과 94.83점 ▲학부대학 94.65점, 자연계 ▲인공지능학과 95.50점 ▲전기전자공학부·차세대통신학과 95.17점 순으로 집계됐다.

종합하면 수능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는 인문계에서는 경영학과와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에서는 반도체·AI·컴퓨터 관련 학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전공선발이 확대된 최근 입시 구조를 고려할 때,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최종 학과 선택에서도 이 같은 학과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과별 재학생 수 격차가 커지고, 졸업인원 기준으로도 학과 간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현진 기자

# 강성영 한신대 총장 "한신다움 정신 계승"

**한신대, 미래비전 VISION 2040 제시**
**"100주년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 구축"**

"한신대학교는 신앙과 학문,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창학 100주년을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다."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캠퍼스 예배당에서 열린 제21대 총장 취임예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선신학교의 창학 이념과 '한신다움'의 정신을 계승해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으로 '한신의 미래비전 VISION 2040'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신학과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AI 융복합교육 혁신 ▲인간 중심의 AX(AI Transformation) 기술 발전 선도 ▲평화교육 실천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 구현 ▲신학대학원 중심 서울캠퍼스의 세계적 신학교 재건 등이다.

이날 취임예식은 1부 예배와 2부 취임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전철 교목실장의 인도로 김은경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의 기도, 김지욱 신학대학원 학생회장의 성경봉독, 소프라노 권은주(한양대 교수)의 찬양 순으로 이어졌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종화 총회장이 '개혁의 정신과 신학교육'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종화 총회장은 설교에서 "한신대는 '한신성'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과 정체성을 지닌 대학"이라며 "교육이념인 '진리·자유·사랑'은 성경이 강조하는 '정의·인자·겸손'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2부 취임식은 박재원 목사(한신학원 이사회 서기)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오용균 한신학원 이사장의 임명사, 강성영 총장의 취임서약 및 취임사, 교기 전달 등이 이어졌다. 이후 소프라노 권은주와 베이스바리톤 윤종민의 축가, 채수일 전 총장과 김준혁 국회의원의 축사, 교가 제창, 주재용 전 총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현진 기자

# 서울 전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중랑캠퍼스 개관… '1자치구 1캠퍼스'**
**AI·디지털 분야 청년인재 양성 목표**

서울시가 AI·디지털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25호 중랑캠퍼스를 개관하며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구축을 마쳤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중랑캠퍼스(망우로 313)는 연면적 620㎡ 규모로 강의실 3곳, 커뮤니티 라운지, 팀 프로젝트실 등을 갖췄다. 서울시는 이곳에서 디지털마케팅, 데이터분석, 서비스기획 등 3개 AI 융합 과정을 운영하며 올해 75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교육은 11월 초부터 내년 2월 초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패션 브랜드 마케팅 실무 ▲생성형 AI 데이터분석 ▲금융·공공 IT 서비스 기획자 양성과정으로 구성됐다. 패션 브랜드 마케팅 과정은 글로벌 마케팅 실무 프로젝트를, 생성형 AI 데이터분석 과정은 핀테크·금융AI 분야 실습과 멘토링을, IT 서비스 기획 과정은 금융·공공·물류 분야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다룬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5년간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해 총 1만114명의 청년을 교육했고, 누적 취업률은 75.4%를 기록했다. 수료생의 직무유지율도 평균 93%로, 교육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이어가는 비율이 높다.

한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 2개소에서 출발해 매년 확충돼 올해 중랑캠퍼스 개관으로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중구·종로 3곳을 'AI 특화캠퍼스'로 개편해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특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1기 수료생의 70%가 삼성, 쿠팡, 크래프톤 등 주요 기업에 취업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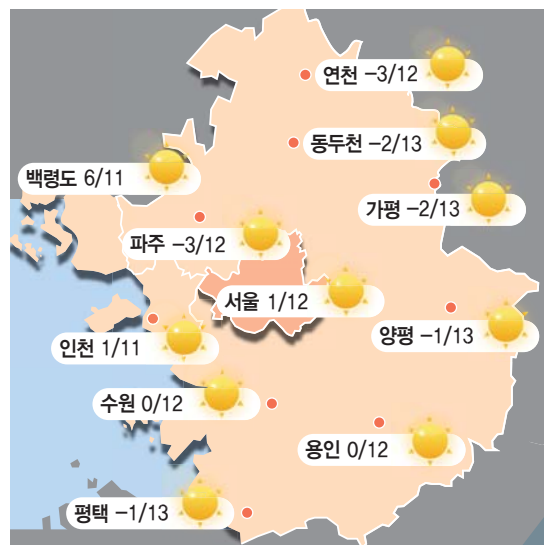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뜸 / 06:59 | 해짐 / 17:32

11월 3일 (月)
음력 : 9월 14일

수도권 날씨
1 ~ 12℃

| | |
|---|---|
| 운동 지수 | |
| 빨래 지수 | |
| 세차 지수 | |
| 외출 지수 |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美 "中, 조선·해운 보복조치 철회키로"…한화오션 제재 풀리나
▲영국 열차내 칼부림에 9명 중태…경찰 "중대사건" 대테러 수사 /사진 뉴시스
▲세르비아 기차역 붕괴 참사 1주기에 수만명 추모집회
▲비밀 어창에 잡은 고기 숨긴 중국어선 2척 나포…이튿날 석방
▲"독도 비행이 이유"…일본, 블랙이글스 자위대 기지 급유 거절
▲"121명 사망한 브라질 갱단 소탕 작전서 34억원대 무기 압수"